

# 게리 예이츠 박사, 제12권, 24회, 스바냐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12장에 관한 강의 시리즈의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스바냐서에 관한 24강입니다.

신명기 18장에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실제로 초점을 맞춘 것은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걸쳐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의 백성에게 자신의 말씀을 전하고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2장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충실하고 언약의 책임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도 주님은 무엇보다도 앗수르 위기 동안 한 무리의 선지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바벨론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에 대비하고 다가올 심판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일련의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늦은 시간에도 여러 세대에 걸쳐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시고 경고하시며 그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훔 선지자와 오바댜 선지자는 이 시기에 사역하며 유다 백성을 억압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행한 백성에 대한 심판을 외쳤습니다. 나훔은 앗수르 사람들의 심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바댜는 에돔 사람들에게 대한 심판에 초점을 맞춥니다.

12장에는 하박국과 스바냐라는 두 선지자가 있는데, 그들은 유다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설교하고 다가올 심판과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시리아인. 이제

스바냐와 하박국의 메시지는 주요 선지자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메시지를 보완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땅의 백성을 섬기며 바벨론의 침공 몇 년 전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내내 그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의 멸망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나 바벨론 사람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605년부터 바벨론에 살고 있던 포로들에게도 신실하셨고, 심지어 그들에게 예언의 음성도 주셨습니다. 에스겔은 597년에 포로로 잡혀 가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유다의 정치 관리이자 포로 생활자 중 한 사람이자 바빌로니아 정부와 페르시아 정부의 정치 관리였던 다니엘 역시 예언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영어 성경의 주요 선지자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저작물 중 히브리어 정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바냐의 메시지를 살펴본 다음 하박국의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그것이 정경적인 순서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스바냐의 메시지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하박국보다 그의 사역의 역사적 시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스바냐의 메시지는 스바냐가 하나님께서 유다에 내리기로 예비하신 심판이 여호와의 날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 심판은 엄중하고 궁극적으로 우주적 범위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시는 심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쏟아 붓는 심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12장에서 두드러진 모티프이자 주제입니다. 이는 요엘서의 예언에서 12장의 시작 부분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서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모스는 백성들에게 주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주의 날을 고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모스는 심판의 때가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스바냐도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아모스가 경고한 대로 앗수르의 위기는 여호와와 날이며 임박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고 그들의 죄에 대한 보응을 내리기 위해 내려오시는 특별한 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스바냐도 백성들에게 같은 일을 경고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날의 새로운 분할과 다른 단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바벨론의 손에서 그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며, 원수가 다가올수록 그날은 여호와와 날이니라. 포로 기간 이후 요엘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의롭게 되지 않으면 주의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와 모티프는 12권 전체에 걸쳐 흘러갑니다.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나훔서를 다룰 때 이런 얘기를 좀 했지만, 앗수르에서 바벨론으로 권력이양과 앗수르 위기에서 바벨론 위기로의 이동은 나보폴라사르 때인 기원전 626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독립을 주장하고 앗수르로부터 바벨론의 독립을 확립합니다. 그 시점부터 나보폴라사르와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앗수르 제국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나보폴라사르는 결국 메디아와 동맹을 맺었고, 이 강력한 군사 연합은 그 시점부터 아시리아를 공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614년에 그들은 아셀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기원전 612년에 그들은 나훔의 예언이 성취된 니느웨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609년에 남은 아시리아 군대는 마침내 하란에서 바빌로니아인들에게 함락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나보폴라사르의 아들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은 기원전 605년에 바빌로니아 군대를 이끌고 갈그미스(Carchemish) 도시에서 이집트인들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근동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이며,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 승리로 바빌론과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고대 근동의 지배 세력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 이후, 느부갓네살은 즉시 남쪽으로 진군하여 시리아 팔레스타인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해에 죽을 것이고 그는 왕좌를 장악하기 위해 서둘러 바빌론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605년에 유다에서 첫 번째 포로 무리를 되찾으실 것입니다. 그 작은 유배자 집단에는 다니엘이 그 집단에 가장 두드러진 인물로 포함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유다 왕들과 유다 지도자들은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해마다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는 시리아-팔레스타인으로 원정을 떠날 예정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한 일 중 하나는 조공 바치기를 거부하고 충실한 가신이 되지 않는 반역적인 국가들을 자주 상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597년에 두 번째 유배로 이어집니다. 유다 왕 여호야קים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반역합니다.

그가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를 오가며 통치하는 동안 항상 이러한 긴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여호야קים은 바벨론에 반역하고 조공 바치기를 거부합니다. 그 결과, 느부갓네살은 그의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입니다.

그들은 597년에 그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여호야김 왕은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도시에 도착하면 그는 두 번째 유배자들을 데리고 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더 큰 무리입니다.

두 번째 유배자 그룹에는 선지자 에스겔이 포함될 것입니다. 나중에 593-592년에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선지자로 불릴 것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즉위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18세 여호야김 왕이 18세였습니다.

그도 사로잡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배의 두 번째 단계이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며 심판을 완전히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다를 완전한 멸망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왕들과 지도자들과 군대가 바벨론에 복종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유다의 통치권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에게 복종한다면 그 나라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완전히 멸망되지 않도록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597년에 그 도시에 왔을 때 여호야김을 대신하여 왕을 왕좌에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여호야김의 삼촌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바벨론의 꼭두각시가 되기 위해 보좌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를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가 조공을 바치는 한, 예레미야는 그가 바벨론에 복종하는 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휘하의 군대와 유대 관리들은 결국 그를 설득하여 바벨론에 반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레미야가 주는 조언을 거부하고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반역하고 조공 바치기를 거부합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로 이어진다. 느부갓네살은 다시 그의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이다. 이번에는 그 도시를 살려주고 다시 기회를 주는 대신에 그는 시드기야를 포로로 삼을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성문을 파괴하며 성전을 불태울 것이다. 이 침략이나 포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유배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587~586년이 지나면 남는 것은 그 땅의 가난한 사람들뿐이다.

예레미야는 은혜롭게도 그곳에 머물면서 이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조언과 격려와 지시를 주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것은 유다 왕국의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시드기야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의 반역으로 인해 그와 그의 가족이 체포되자 그의 두 아들은 처형됩니다. 그 후 시드기야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아들들의 죽음과 처형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남은 생애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다의 마지막 두 왕, 3개월만 통치한 18세의 여호야김 왕 과 마지막에 유다 왕이

된 그의 숙부 시드기야는 모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들은 대중 전체의 운명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의 사역은 실제로 다가오는 바벨론 위기의 전주곡으로 발생합니다. 그는 이 세 단계의 유배를 앞두고 회개해야 할 필요성을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아마도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지배적인 세력이 되기보다 앞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바냐가 직면하고 있는 죄악에 묘사된 정황과 상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에 따르면, 스바냐의 사역은 실제로 요시야 왕 시대에 시작됩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마지막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기원전 640년부터 609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는 여덟 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원전 609년, 39세의 나이에 므깃도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스바냐를 보고 그의 사역의 맥락을 생각해 보면 소선지자가 그의 사회와 문화,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가장 경건한 왕 중 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사실, 그의 통치와 통치를 평가하는 열왕기는 단순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시야만큼 순종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행한 왕이 이 외에는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열왕기에서는 그는 순종의 궁극적인 모범으로 제시됩니다. 그 이유는 요시야가 백성들을 다시 불러모아 여호와를 더욱 신실하게 예배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게 하는 개혁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일련의 개혁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나의 이해는 우리가 스바냐 사역의 배경과 맥락, 환경을 볼 때 스바냐 자신이 그러한 개혁이 일어나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스바냐가 사역하던 시기와 맥락에서 개인으로서 스바냐에 관해 몇 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스바냐에게

임하고 그 후에 그의 가문이 여러 대에 걸쳐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시의 아들, 그달리야의 손자, 아마랴의 손자, 히스기야의 손자.

좋아요, 여기 흥미로운 토론이 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의 가장 유명하고 가장 경건한 왕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701년 앗수르의 침공 상황에서 주님을 신뢰한 사람이며, 유다는 살아남았고, 예루살렘은 살아남았고 실제로 북왕국과 같은 방식으로 앗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되지는 않았는데, 특히 히스기야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 이제 주석가들이 여기서 토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다 왕 히스기야입니까? 아마도 이에 반대하는 주장은 마치 우리가 히스기야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그가 유다 왕이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것에 반대하는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주장은 선지서에서 선지자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의 아버지에 대해 언급하는 것 이상을 갖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4대에 걸쳐 언급된 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이 나에게 강조되었다는 사실은 스바냐가 히스기야 왕의 가문에서 나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 시대 전체에 걸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의 선지자들을 부르시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또 다른 예를 갖게 됩니다. 아모스는 토지 소유자이자 목동이었고 상당히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가는 모레셋 가드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도 왕족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습니다. 스바냐는 그러한 연관성 중 하나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더 많은 제사장 가문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들을 개입하시고 부르십니다. 현실은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왔습니다.

스바냐는 왕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스바냐의 전파 활동은 당시 왕이었던 요시야 왕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요시야의 통치에 관한 몇 가지 생각과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야는 여덟 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의 삶의 시작부터 그 앞에 므낫세와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암몬의 사악한 본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유다의 가장 사악한 왕 두 명.

므낫세는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온갖 우상 숭배를 자행했습니다. 그는 예배를 위해 우상의 물건을 성전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가 아세라 상을 성전에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아들 중 하나를 거짓 신들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갖 부패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또한 폭력과 불의를 조장했는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그의 신학적 신념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은 므낫세의 행악이 그 전에 왔던 모든 왕보다 더욱 악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스리기 전에 그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보다 더욱 악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3절부터 15절도 므낫세가 배교로 유다의 운명을 결정지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배교로 인해 예루살렘을 접시처럼 닦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곳에서 최종 선언이 내려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므낫세와 암몬의 통치 기간에 55년 내지 60년 동안 이러한 긴 악의 통치가 있었습니다. 암몬은 아버지의 정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요시야가 8세에 왕위에 오르고 아주 어린 나이에 주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요시야가 이렇게 하고 그의 삶에서 이러한 방향을 취하도록 특별히 이끈 것은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초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어머니 제디다(Jedidah)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에 요시아에게는 그를 이 방향으로 인도해 준 경건한 어머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힐기야와 그에게 그 방향으로 조언해 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조언자와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영향 중 하나가 스바냐 선지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대하 34장과 3절에서 요시야가 수행한 개혁, 이러한 일의 시기, 요시야와 주님의 관계의 진전에 대해 어느 정도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서 요시야에 대해 말해주는 것은 요시야가 통치한 지 팔 년이 되었을 때 아직 소년이었을 때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여덟 살이었을 때, 그의 삶에는 이미 경건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6세 즉 즉위 8년에 스스로 사람이 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초기 기초는 그의 통치 기간 동안의 통치의 질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는 열두째 해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조각한 신상들과 부어 만든 신상들을 제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요시야는 열두 살이 되던 해, 즉 스무 살이 되던 해, 기원전 628년에 그의 조상 므낫세와 암몬이 유다 백성의 숭배에 도입한 우상 숭배 요소들을 공격적으로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시야의 개혁을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의 통치 18년에 일어난 일과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통치 제18년인 기원전 622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건을 치우고 성전을 수리하여 원래의 예배 장소로 복원하던 중 잃어버렸고 잊혀졌던 감추어진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모세 율법의 일부였습니다.

특히 신명기의 상당 부분을 최소한 포함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명령을 주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를 줍니다. 그 두루마리, 새로 발견된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율법이 잊혀졌을 때, 므낫세와 암몬 시대의

상황은 너무나 부패하고 사악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왕은 이 계명들을 스스로 기록해야 했지만 그 법은 무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율법을 가져오고 새로 발견된 이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가져오자 그들은 그것을 그에게 읽어 주었고 왕은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생명과 생명을 가져오기 위해 더 많은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유다 백성의 행동과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진행 과정을 추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덟 살이 되던 해부터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열두째 해에 유다에서 우상 숭배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622년 율법서의 발견과 관련하여 이러한 개혁을 단행했다.

여기서 분명한 점은 율법책이 발견되기 전에 요시야의 삶과 사역의 방향에 영향을 미쳤던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의 어머니의 영향, 다른 경건한 지도자들의 영향, 그리고 스바냐의 설교가 아마도 요시야가 요시야서를 발견하기 전에 이러한 개혁을 수행하도록 격려받은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기원전 628년부터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제 그 주장에 도움이 되는 것 중 하나는 유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스바냐가 묘사한 상황을 살펴볼 때입니다.

그가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말할 때,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스바냐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에 사역하고 있다는 확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기 있는 백성들에 대해 제공하는 메시지와 고발은 분명해 보이며, 그 메시지는 요시야의 개혁 이후보다는 요시야의 개혁 이전의 유다의 상태에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바냐 1장 4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 위에 내 손을 펴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는 손을 뻗을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글썄요, 나머지 구절에서는 이 점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바알의 남은 자들, 곧 바알의 남은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가나안 신들을 숭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통치 기간에 그는 아세라 상을 성전과 다른 우상 숭배 대상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개혁이 수행되기 전에 우리가 읽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이름과 지붕에서 하늘의 군대에게 절하는 자들과 옆드려 여호와께 맹세하면서도 밀곰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의 이름이니라. 그래서 또 다른 두 가지 우상 숭배 행위가 있습니다.

이때 유다 사람들은 이교 숭배의 일부였던 별의 신들과 별빛 군대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의 두 번째 부분에는 혼합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몸을 굽히고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밀کم 신에게 맹세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밀곰 신이나 몰렉은 암몬의 신이고 그의 숭배는 구약의 여러 곳에서 언급됩니다. 그는 특히 구약에서 어린이 희생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므낫세가 자기 아들을 신들에게 제물로 바쳤다는 것을 역대하 33장 6절에서 알고 있습니다.

밀곰이나 몰렉에 대한 이러한 숭배는 바알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동 희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되는 죄입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가 언급됩니다. 바알 숭배, 별빛 군대 숭배, 밀곰 숭배. 이제 이 신 밀곰의 이름의 의미는 분명히 여기에 왕이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문자 M, L, K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은 암몬 자손이 왕으로 인정하는 신입니다. 일부 영어 번역에서는 이것을 인간 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나 여기 별빛 군대에 대한 언급과 바알에 대한 언급의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여기서 갖고 있는 것은 혼합주의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와 밀곰을 두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숭배하려는 근본적인 불일치를 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들과 신들에

대한 이러한 관행과 숭배가 스바냐가 여기 스바냐서 초반부에서 정죄하는 것의 일부라는 사실은 이것이 요시야 통치 초기에 유다의 상태였음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와 역대하에서 읽는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행간을 읽어보면 요시야의 설교나 개혁을 동기를 부여한 것 중 하나가 단지 18세에 율법책을 발견한 것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그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관리들과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유다가 경험했던 가장 위대한 종교 개혁에 동기를 부여한 것은 스바냐의 설교였습니다. 이 모든 다양한 영향력이 그의 삶에서 작용함에 따라 요시야는 므낫세와 암몬이 유다에 가져온 우상 숭배 영향력을 제거하는 데 그의 통치와 통치의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다의 예배.

결국 그는 산당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물건들을 가져갈 것입니다. 어린이 제사 얘기가 나오자 열왕기하 23장 10절에 그는 힌놈 골짜기를 더럽힐 예정인데, 그곳은 바로 이러한 어린이 제사를 행하던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다 땅, 예루살렘 성 바로 외곽에 토벳이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그 곳을 더럽혀서 더 이상 거룩한 매장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수한 예배, 순수한 헌신을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통치와 통치를 바치셨습니다. 그는 남쪽 왕국 유다에서 이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러한 개혁을 확장하고 원래 북쪽 왕국의 일부였던 영토로 사람들을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헌신으로 다시 부르도록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을 봅니다. 아시리아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요시야는 실제로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요시야가 앗수르 제국의 멸망을 고대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벨론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된 이유는 이것이 아마도 남방과 동방을 통일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북부 왕국. 결국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이 갈등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행한 개혁은 그의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시야에 관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요시야가 유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개혁과 귀환,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한 방식은 열왕기서에 보면 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요시야의 헌신은 결국 므낫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위협하신 심판을 지연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도와 계획을 발표하시지만, 사람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취소하거나 심판을 연기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요시야의 개혁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왕기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의 슬픈 부분은 요시야의 개혁으로 심판이 늦어졌을 뿐, 취소되거나 연기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그가 죽은 후 곧 유다가 궁극적으로 우상 숭배 행위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부터 27절에 이르기를 그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좇아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 그와 같은 자가 일어났느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격노케 한 모든 격노로 말미암아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제한 것 같이 유다도 내 목전에서 제하리라 내가 택한 이 성읍 예루살렘을 내 이름이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집을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결국 판단을 미루게 됩니다. 그는 판결을 연기합니다.

그러나 유다가 죄악된 길로 돌아가고 이러한 개혁과 유다의 예배를 정결케 하기 위해 요시야가 한 일의 효과가 모두 매우 빨리 사라질 때, 심판의 경고는 다시 발효됩니다. 예레미야와 다른 선지자들은 자신의 백성이 우상 숭배의 길로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할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에 요시야가 힌놈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더럽혀 자녀 제사라는 가증한 일이 계속되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7장 31절과 32절을 언급합니다. 19장에서도 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힌놈의 골짜기는 살육의 골짜기가 될 것이며, 사람들이 돌아가므로 시체가 쌓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하여.

그들은 심지어 아동 희생의 관행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요시야는 므낫세와 암몬이 하나님의 전에 드렸던 금속 우상과 아세라 목상과 같은 우상을 제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8장에서 우리는 성전에 온갖 가증하고 가증한 형상이 가득한 환상을 봅니다.

그들은 벽 전체에 있습니다. 신으로 묘사되는 동물과 피조물, 온갖 사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의 전에 다시 가져온 이 우상들과 내 영광을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러한 물건들과 이미지들을 제거한 다음 그것들을 다시 가져오고 다시 도입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44장에서 애굽에 살고 있는 포로들 중 일부는 요시야가 이러한 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예물과 예물을 바치는 일을 중단하고 가나안 사람의 다산을 중단했다고 말합니다. 신들. 우리는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 문제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곧 우상 숭배로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날이 다가온다는 스바냐의 경고가 더욱 절실했습니다. 요시야는 그 메시지에 응답했습니다.

요시야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메시지에 응답했습니다. 요시야는 신명기 28장에서 율법책에 나오는 저주에 대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응답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긴급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국가비상사태였지만 국민들은 이를 금방 잊어버리고 판결이 내려졌다. 요시야는 31년 동안 경건한 정권을 이끌었습니다. 609년에 그가 죽은 후에 유다의 모든 왕과 그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들은 모두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한 왕들로 기록되었습니다.

요시야가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 뒤를 이어 석 달 동안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그 땅을 거쳐 돌아옵니다. 그들은 그를 제거하고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여호야김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여호야김은 특히 사악하고 불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597년 바벨론이 그 도시를 점령하기 전에 죽었습니다. 여호야김은 18세였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킹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하고 무능한 통치자인 시드기야는 선지자의 권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왕은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이후 유다는 이 암흑기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 행위로 돌아갑니다. 왕은 여호와를 따르기를 그쳤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의 침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원전 605년, 597년, 그리고 586년에 체계적으로 스바냐가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경고한 것이 하나님에 의해 실행되고 성취될 것입니다. 자, 이제 스바냐의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책의 구성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짧고 간결한 책이지만, 우리가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명확하고 정의 가능하며 인식 가능한 구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바냐서는 우리가 Chiastic 구조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스바냐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 곧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교차 구조가 하는 일은 그것이 발전하고 펼쳐지며 우리가 이 주님의 날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1장 2절부터 6절까지의 이 교차점의 첫 번째 요소에서 스바냐는 다가오는 유다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요, 이것이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니라. 그 이상으로 7절에서 13절까지 나아가면, 다음 요소는 이 심판이 유다의 지도자들과 부자들과 유력자들 에게 구체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스바냐 1장 8절에 사용된 관직을 뜻하는 사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1장 끝 14절부터 18절까지에서 여호와의 날의 심판은 유다를 넘어 유다까지 확장됩니다. 지구 전체.

그것은 우리가 아모스에서 본 것과는 다른 주님의 날에 관한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모스는 여호와의 날을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스바냐는 유다에게 임할 심판과 궁극적으로 온 땅에 임할 심판 사이를 왔다갔다합니다.

요엘서를 보면 거기에도 그런 심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열국에 내리실 심판이요, 그것은 우리가 오바댜서 15절 이하에서도 본 내용입니다. 에돔 사람들은 그 시대에 유다에 닥친 멸망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에돔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한 것은 그들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바댜는 이것을 온 땅에 퍼질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1장의 끝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장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다의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자들의 심판이 있고, 관리들과 사림이라 불리는 지도자들과 주의 날이 다가온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지고 온 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14-18절). 우리는 2장 1-3절에서 교차 구조의 중간 부분을 봅니다. 이것이 스바냐가 호소하는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스바냐는 이 심판에 비추어 국민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고 요시야가 회개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에서 면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이 회개가 오래



지속되었더라면 아마도 바벨론의 위기에 대한 심판을 완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호소가 있습니다. 1장에서 이 끔찍한 심판이 묘사된 후에 스바냐는 그것이 임박했고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주님의 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것은 곧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 비추어 스바냐가 하는 일은 종합적입니다. 이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날이 겨 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와 맹렬한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여호와와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모든 부끄러운 나라들을 모으라.

여호와와 의로운 계명을 행하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를 찾으라 의를 구하십시오. 겸손을 구하십시오. 어쩌면 너희가 여호와와 진노의 날에 숨겨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개념이 1장에서 우리에게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의를 구한다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을 접시처럼 닦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르밧세 시대의 사악함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인 진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기한을 옮기시어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나는 예레미야 시대에 그가 설교하면서 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성전에 갈 것입니다.

그는 20년 동안 설교한 후에 자신의 예언이 담긴 두루마리를 읽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이것을 마음에 새길지 모르며, 어쩌면 내가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위협한 재앙을 피하고 보내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스바냐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이전에 보았던 것과 어떤 의미에서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주님을 찾고, 이제 아모스가 아모스 5장에서 말한 것과 매우 유사하게 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한다면, 이제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숨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판단을 완전히 피할 수 있다는 느낌은 이제 그림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충분히 많으면 그들은 숨겨질 것입니다. 요시야가 가져온 이 부흥이 만일 백성들이 여호와께 대한 약속을 완전히 지켰다면 그것이 영구적이었으면 이 시점의 심판은 피할 수 있었고 여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책의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바냐가 이 사람들에게 호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의 나머지 2장과 3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요소들이 거꾸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장 14절부터 18절의 마지막 요소는 모든 나라에 임할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2장 4절부터 15절에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일련의 심판의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네 민족과 네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는 3장 1절부터 7절까지로 돌아가 부패한 예루살렘 성과 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부패한 지도자들과 방백들과 사림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 책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마무리하면 유다의 회복과 그 행운이 다가올 것입니다.

제 생각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합니다. 이것은 3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스바냐의 비전은 가까운 미래에 있을 것의 지평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종말론적인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망명에서 돌아온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온전하고 최종적이고 완전한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들이 그 땅에 영원히 머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심판의 때 후에 회복될 것입니다. 이 책의 시작 부분에는 유다에 대한 파괴적인 심판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의 역전과 유다의 회복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심판과 세상의 심판을 함께 결합하는 멋진 교차 구조가 있습니다. 그 범위는 우주적입니다. 이 책의 중간 부분에는 회개에 대한 호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신 후에는 궁극적으로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1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해 가져오실 여호와와 그의 날의 성격을 우리가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기서의 심판은 선지자들의 글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이전에 이것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으며 이 구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의 흰 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된 판결은 정말 파괴적인 용어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말했듯이 이 심판은 그 범위가 우주적입니다. 유다와 열방 모두에게 임할 심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선지자들의 다른 구절과 다른 곳에서 주님의 날에 관해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서 주님의 날은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스바냐는 그의 시대에 일어날 역사적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며 그 후에는 그 주위 나라들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그것은 주님의 위대하고 마지막 날에 대한 미리보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책 끝 부분에서 그의 초점은 먼 지평선과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해 계획하신 것들에 더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괜찮은. 이 판결의 파괴적인 성격은 몇 가지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나는 이것의 일부가 주의 날이라는 용어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이것은 이스라엘의 제의 전통의 일부였던 용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역사적 전통의 일부였습니다.

역사상 특정한 순간과 장소에서 그분은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 개입하셨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승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다른 시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여호사밧 시대의 역대하 20장에서처럼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백성을 위해 전쟁을 치르십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날은 유다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날이 되었습니다. 신은 더 이상 홈팀에서 뛰는 것이 아니라 원정팀에서 뛰고 있습니다. 신은 더 이상 양키가 아닙니다. 그는 레드삭스가 되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 경쟁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충성을 바꾸셨습니다. 주의 날에 대한 개념 역시 고대 근동에서 그 개념을 강조한 개념이었습니다. 그것은 종종 전쟁 수사학의 일부였습니다.

그것은 왕들이 자주 주장했던 수사법의 일부였으며, 비록 원정이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리더라도 그들은 하루 만에 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Douglas Stewart는 그의 기사 The Sovereign's Day of Contrast에서 이러한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널리 퍼져 있는 고대 근동의 전통에 따르면, 진정으로 위대한 왕이나 주권자는 하루 만에 적들에 대한 군사 작전이나 심지어 전체 정복 전쟁을 완수할 수 있을 만큼 보편적인 힘과 권위를 소유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의 전쟁은 결정적인 전투로 끝나기 전까지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지속되지만, 진정한 군주는 하루 만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르의 수메르 왕이 수사의 땅을 점령하고 하루 만에 그들을 굴복시켰다고 자랑하는 기원전 196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수메르 비문에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2장 4절에서도 이에 대한 반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성 가자가 폐허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블레셋의 또 다른 도시인 아스글론은 황폐될 것이다. 아스돗의 백성은 정오에 쫓겨나고 에그론은 뿔히리라.

이 전투는 끝날 것입니다. 그들은 한낮까지 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이라는 개념 자체는 무서운 개념입니다.

이 전쟁이 묘사되고 이 심판이 묘사되면서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나는 우리가 여기서 제시하는 아이디어와 이미지와 그림이 창조의 소멸과 반전과 취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내리실 심판은 마치 노아 홍수의 심판처럼 들립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쓸어버릴 것이다. 내가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를 쓸어버리리라. 실제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취소하고 역전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은 사람과 동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거되었습니다. 창조 초기에 하나님은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쓸어버리십니다. 심판은 그 범위에 있어서 총체적이고 우주적이며 악인과 함께 잔해를 지면에서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끊으리로다. 그리고는 “내가 유다를 향해 내 손을 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바냐의 메시지와 수사학의 일부는 우리가 우주적 심판과 유다에 초점을 맞춘 심판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물을 멸절시키는 파괴적인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흰 물입니다.

그것은 거의 노아 홍수의 복원이다. 예레미야는 4장 23절에서 비슷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내가 땅을 살펴보니, 보라, 공허했습니다.

그것은 형태도 없고 공허했다. 토후 v' 보후(Tohu v' bohu)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일으키시기 전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용어입니다. 이 심판은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창조 사업을 행하시기 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거나 되돌릴 것입니다.

하늘에는 빛이 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산을 바라보았다. 보라, 그들은 떨고 있었다.

모든 언덕에서 그들은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내가 보니 사람이 하나도 없고 공중의 새들이 다 도망갔더라. 당신은 바빌론의 침략이 얼마나 파괴적일 것인지 이해하고 싶어합니다.

창세기 1장을 취소하면 어떻게 상상해 보세요. 스바냐는 창조 자체가 취소되고 제거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볼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창조의 파멸, 노아의 홍수, 그리고 계속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판의 파괴적인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것 중 하나는 1장 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날이 가까웠으니 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모퉁이만 돌면 바로 있어요. 또한 여호와께서 제사를 예비하시고 그 손님을 성별하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와 날의 심판은 백성이 예루살렘 성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에 비유되었느니라.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도시와 사람들 자신이 불태워져 제물로 바쳐질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시는 파괴적인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장의 끝에서는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해 행하시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2장에 언급된 나라들에는 서쪽에 위치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모압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구스 사람에 대한 심판이 있느니라. 그 다음에는 앗수르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는 나훔이 그의 책에서 북쪽에 있는 적들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말한 것과 매우 유사하게 들립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이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역사적 심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땅에 내리실 심판과 마지막 날에 주님의 마지막 날에 임할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관찰은. 마침내 이 파괴적인 심판의 기별이 있는 후에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과 유다와 그 주변 나라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이 있는 후에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마지막 죽음의 선포가 있느니라 유다의 지도자들이 반역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하고 더럽혀진 그 압박하는 도시에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어떤 목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그녀는 어떤 수정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그녀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패역한 성읍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회개하라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오라클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응답을 제공합니다. 요시야 시대에는 일시적인 회개가 있을 것이지만, 결국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 생각에 유다에 대한 심판이 열방의 심판과 연결되어 연결되어 있는 수사법의 목적과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이 유다가 이교도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면제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선지자가 유다에 대한 심판과 열방의 심판을 통합하는 방식은 그들이 단지 하나님의 날에 일어날 또 다른 사악하고 불순종한 백성일 뿐이라는 생각을 반영합니다. 주님은 심판의 대상이 되실 것입니다. 5절에 그 속에 계신 여호와와는 의로우시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불의를 행하지 않으십니다.

매일 아침 그분은 자신의 정의를 드러내십니다. 새벽마다 그는 실패하지 않으나 불의한 자는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로 인해, 그리고 그들이 야훼의 성품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괜찮은. 그러나 스바냐서의 마지막 말은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가까운 지평선과 가까운 주님의 날, 희생과 같고 창조의 파멸과 같을 이 파괴적인 심판으로부터 멀어질 때, 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8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스바냐와 같은 의로운 사람들,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에 대한 격려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겪었고, 파괴를 경험했습니다.

선지자는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 약탈할 날을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열국을 모으고 나라들을 모아 그들에게 나의 분과 모든 맹렬한 진노를 쏟으리니 이는 나의 질투의 불로, 온 땅이 멸망될 것이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주님께서는 스바냐와 같은 의로운 사람들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나를 기다리라 그리하면 마침내 구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가서 12장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사역 기간 동안 눈에 띄는 모티브로 우리가 보기 시작한 것 중 하나는 앗수르 위기 때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애도의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것을 기쁨의 시간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하박국의 메시지는 스바냐가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은 궁극적으로 이 일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과 매우 밀접하게 유사합니다. 미래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완전하고 완전한 최종 회복과 구원을 가져오는 세계적인 심판을 수행하실 것입니다. 좋아요.

9절에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이 장차 이 큰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때에 내가 만민의 말을 깨끗한 말로 바꾸사 모든 사람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마음으로 그를 섬길지니 곧 이곳에서 심판을 받은 백성 중 하나인 나의 예배자들 곧 흠어진 자들의 딸이 내게 예물을 가져올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말을 순결한 말로 바꾸시는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 여기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그분이 앞서 창세기를 암시하셨던 것,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저주의 반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벨탑에서 인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런 종교 제도를 만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나라들을 흠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이었는데, 그것은 형벌의 한 형태였습니다.



결국 여기 최후의 구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모든 민족의 말을 바꾸실 것입니다. 비록 전 세계적인 심판이 있어 온 땅이 멸망할지라도 흠어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포로들에게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말을 바꾸어서 그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사야 19장에서 이사야가 미래 왕국에는 세 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이 있을 것이고, 이집트가 있을 것이고, 앗수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가나안 말을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스바냐에는 파괴적인 심판의 메시지가 있으며,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말을 바꾸실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정화의 심판을 통해 그분을 경배할 백성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재결합하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 마지막 절에 이르되 내가 그 때에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때에 너희를 모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복을 회복시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받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운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바벨론 위기 이전에 스바냐가 요시야와 유다 백성에게 준 메시지에 다시 요약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죄를 지었고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의 운명을 회복하시고 스바냐가 말하는 끔찍한 심판을 뒤집으실 것이라는 희망의 제안과 약속이 있습니다. 책의 시작 부분에서는 창조가 취소되고 노아 홍수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책의 마지막에는 바벨의 저주가 풀리고 하나님은 민족들과 나라들 가운데서 자신을 예배하는 백성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12장에 관한 강의 시리즈의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스바냐서에 관한 24강입니다.